

도내기업 절반 “올 목표실적 달성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시장 침체

환율·원자재가 상승 리스크로 작용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558억 3000만 달러로 무역 통계 집계 역사상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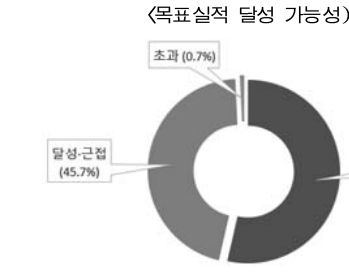
전주·익산·군산·전북사남 4개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광삼)가 도내 13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인 53.6%가 '올 초 계획했던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목표했던 실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리스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의 침체를 우려하는 응답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와 환율로 인한 산업계의 시름을 반영하듯 '환율 및 원자재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66.9%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특히 매출유형별로 수출기업은 '환율 및 원자재가 변동성'을 우려하는 응답이 93.3%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내수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응답이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기업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및 근무환경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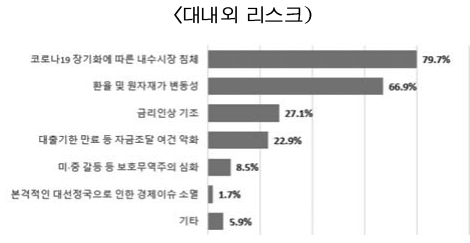
도내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전과 비교해 '기업활동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재택근무제,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응답은 30.5%,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의 확대' 16.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의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의 경우는 '재택근무제,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응답이 86.7%로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유형별로 수출기업의 경우 '재택근무제 시행,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비롯한 한국은행 모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은 내수시장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부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제공〉

윤광삼 전북상협 회장은 "전라북도 내수 의존도가 높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경제 특성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해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한 기업들이 경기회복세에 발맞추어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수진작을 포함한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협·부안농협

도내 취약농가에 '사랑 더하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과 함께 지난 19일 라이브커머스 판매와 연계한 지역사 회공헌으로 도내 취약농가에 쌀 1톤과 김치 1톤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15일 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 봉사단이 직접 담긴 김치 500포기 1톤과 19일 라이브커머스 판매로 판매실의 20% 1톤을 전라북도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미자)에 기부했고 부녀회를 통해 도내 취약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정재호 본부장은 "도내 취약농가에 농협에서 생산된 쌀과 농가주부모임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천하는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인과 함께·농업인과 함께하는 전북농협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매년 명절 나눔 보훈가족 나눔, 효서기·효한기 등에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보훈청으로부터 공로자 포상 감사패를 받는 등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여받아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이 지난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2021 세계 식량의 날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개공, 재무건전성 '양호' | 부채규모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철환·사진)의 2021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은 104.2%로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인 300%이내 및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평균인 157.5%이하로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가결산 결과, 자산 6,989억원, 부채 3,569억원, 자본 3,420억원이며, 부채규모는 2020년말 3,689억원 대비 89억원이 감소했다.

2021년 9월말 현재 공사의 부채 3,569억원은 주택도시기금 1,181억원, 임대보증금 1,957억원, 분양선수금 37억원, 대항사입선수금등 394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중에서 임대주

택 관련 부채는 3,138억원(주택도시기금 1,181억원, 임대보증금 1,957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입주 완료해 관리중인 임대주택 10개단지(3,052세대)와 건립중인 임대주택(928세대)과 관련된 부채로서, 임대주택 분양진행 시 자동 해소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상의 전국 도시개발공사 재무현황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개발공사 김철환 사장은 "공사의 부채 중 88%는 공익목적인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분양진행 시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부채"라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를 준수함은 물론,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해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산업 활성화 위해 적극행정 펼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관리소는 목재 재제소, 목구조 건축 현장 건축내장재 및 목공예생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가공, 최종생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목재산업체들은 국산목재 수급의 불안정, 기반시설 부족으로 목재생산-건조-기초가공을 하는데 따른 물류비용 증가,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기업운영의 고충사항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손꼽았다.

이명규 소장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목재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목재산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이끌어 내는

것이 1차목표"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신뢰현장의 상황과 국민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주 열매 주성분, 염증 억제 효과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 사이토카인 발현 50% 억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약용작물 여주 열매의 주요 성분인 열매를 막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재배되는 채소로 당뇨, 설사, 복통 치료를 위한 한약재로 사용되며 최근 항당뇨 효능이 입증됐다. 여주의 주요 성분은 페놀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 등으로 알려졌지만,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 화합물의 경우에는 효능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농진청은 상지대학교 양서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메탄올 추출 방법을 활용 여주 과육(열매살)에서 15개의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15개의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가 동물세포에서 염증 매개체인 전염증 사이토카인 발현을 50%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항염증 효능 화합물(SB203580)보다 우수한 결과다. 특히 15개 화합물 가운데 6번, 11번, 12번 화합물은 낮



은 농도에서도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억제돼 다른 화합물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여주에 함유된 큐커비테인 트리테르페노이드 화합물의 구조를 밝히고, 염증 저해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몰리큘스(Molecules)'에 올해 7월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여주 과육의 항염증 효능을 밝힌 이번 연구는 여주의 소비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능성 원료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도내 레미콘 아스콘 조합 대상 간담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일 청내 회의실에서 도내 레미콘·아스콘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레미콘·아스콘 다수 공급업체와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견은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레미콘 등 관련 업체는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으로 레미콘 아스콘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액체수소·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설비 제조

전북도-새만금개발청-디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협약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디엘(주)과 액체수소·액화천연가스 컨테이너 및 충전소 설비 제조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과 디엘(주) 임근영 대표 이사 이상에 새만금개발청차장,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 이상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디엘(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산단 1공구 내 모빌리티 클러스터(이동수단 협력지구) 3만4,000㎡에 2023년까지 107억원을 투자해 액체수소·액화천연가스 컨테이너 및 충전소 시설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디엘(주)은 영국 MI ENG의 기술협력으로 국내 최초 초저온 이동탱크 국산화에 성공한 초저온 탱크로리 제조 전문기업이다.

디엘(주)의 초저온 탱크로리는 초저온 액체의 기화 방지를 위해 진공보온병과 같이 이중 또는 삼중 탱크로 제작해 우수한 내구성과 최소의 열전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임근영 디엘(주) 대표이사는 "지난 30



여 년간 쌓아온 보관·이동용 초저온 액체 탱크의 제작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수소자동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관련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에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엘(주)의 투자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새만금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새만금에 입주할 관련 기관·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장은 "디엘(주)이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핵심지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들과 연계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20일 부터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사의 주거래은행은 공사의 정부 출연자금을 비롯한 사립비 등의 자금집행 및 현금성 자산의 운용, 법인 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일반경쟁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며, 새만금개발공사의 소재지인 군산시에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면, 입찰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 및 새만금 지역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sdca.or.kr)와 공공기관 알리오(ali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